

에너지 브리프¹

2026년 5월

미국-이란 전쟁과 글로벌 석유 공급망²

북미의 셰일혁명은 세계 석유·가스 시장의 패러다임을 '부족한 자원의 시대'에서 '풍부한 자원의 시대'로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하지만 자원이 풍부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강대국들 사이의 패권 경쟁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자원 가용성'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즉, 물리적인 자원량은 풍부해졌으나 공급망의 안전성은 오히려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는 공급망 리스크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에 그치지 않고, 언제든지 발생 가능한 현실화된 위협임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와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보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또 미국-이란 전쟁 이후 사우디·UAE의 호르무즈 해협 우회 파이프라인을 통한 공급 양상과 대안 공급원인 미국의 원유 수출 네트워크 변화를 추적하고 공급망 안보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김태현 선임연구위원(thkim@keei.re.kr)

세계 석유 수급 동향

글로벌 원유 시장은 과거 OPEC 중심의 공급구조에서 벗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비OPEC+ 국가들의 생산 확대에 따라 다극화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셰일혁명의 영향으로 미국의 석유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2006년 6.8mb/d에 불과하던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2024년 사상 처음으로 20mb/d를 돌파하였다.³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합산 생산량에 근접한 수치이다.⁴ 이러한 미국의 생산량 급증은 중동과 러시아에 대한 전 세계적 공급 의존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글로벌 석유 소비는 지역별 경제성장과 기술 발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변화를 거듭하였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주도한 세계 경제 성장은 석유와 가스 수요의 급증을 야기하였고,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수송부문 성장에 힘입어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의 대부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었다. 실제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석유 소비는 2000년에 2.1천만 b/d에서 2024년 3.8천만 b/d에 달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석유 수요의 지역별 비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2000년에 27.6%에서 2024년에는 37.9%까지 증가하며 소비 권역 중 압도적인 1위 규모로 올라섰다.

¹ 에너지 브리프 이슈 내용은 주제와 관련한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다.

² 본고는 김태현(2025)의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³ 원유, 콘텐세이트, NGLs 포함

⁴ EI(2025)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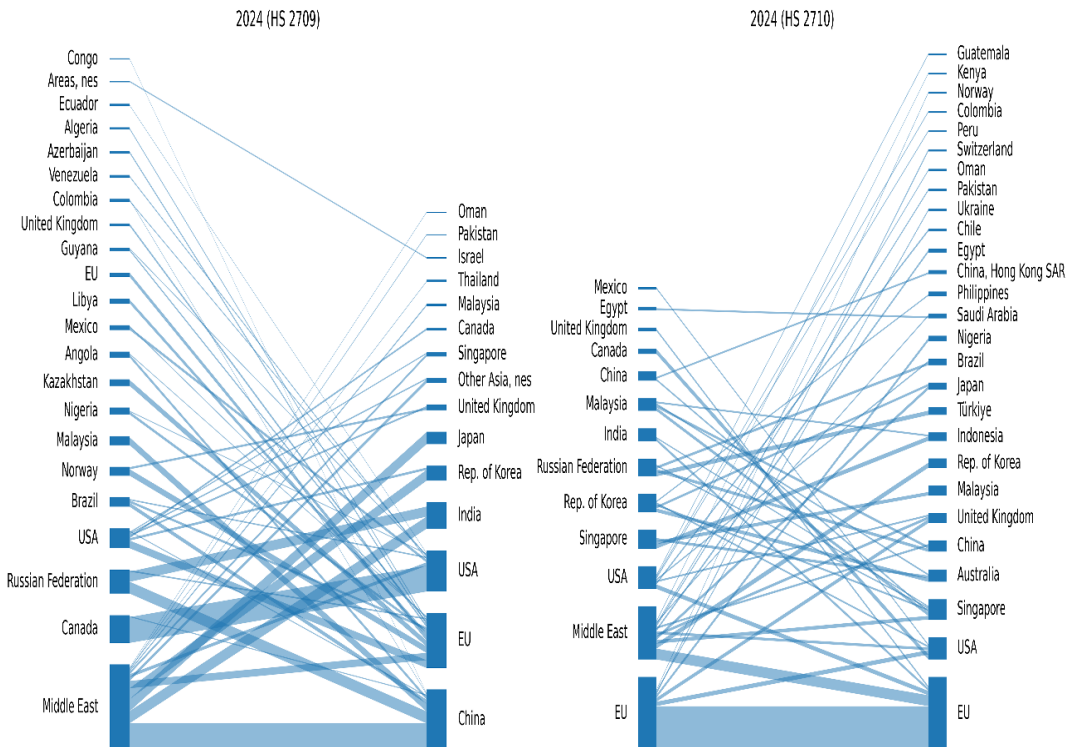
글로벌 석유 교역구조

<그림 1>은 2024년 기준 원유(HS 2709)와 석유제품(HS 2710)의 교역 흐름을 시각화한 결과이다.⁵ 우선 원유 교역구조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글로벌 석유 시장의 핵심 공급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과거 중동에 집중되었던 공급 경로의 편중성이 완화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미국은 셰일혁명을 거치며 최근에는 EU와 아시아에 원유를 대량 공급하는 주요 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주목할 점은 증산된 물량이 자국 내 소비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수입 국가들과의 교역을 신규로 형성하거나 확대하며 공급망 재편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석유 시장이 사우디, 러시아 등 OPEC+ 중심의 특정 지역에 공급원이 집중된 구조였다면, 현재는 미국이 주요 공급자로 등장함에 따라 공급 노드가 다변화된 구조로 바뀌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수출 비중은 약 8.3%로 사우디아라비아(약 14.1%)보다 낮지만, 미국의 교역국 수(30개)는 사우디(25개)나 러시아(9개)보다 많다. 이는 미국이 단순한 수출 규모의 확대를 넘어,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다각화된 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형 변화를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특정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체 공급망에 미치는 파급력을 구조적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러-우 전쟁에 따른 공급망 블록화이다. 전쟁 이전까지 러시아 원유의 주된 목적지는 EU였다. 그러나 전쟁 이후 EU로 향하던 굵은 연결선이 사라지고, 그 물량이 중국과 인도로 급격히 이동하였다. 이는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여 러시아가 공급망을 동쪽으로 재편한 결과이며, 에너지 교역이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정치적 동맹 관계에 따라 블록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원유(HS 2709) 및 석유제품(HS 2710) 교역 흐름(수출국→수입국, 2024년)



자료: UN Comtrade의 Database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⁵ UN Comtrade의 교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원유(HS 2709)는 국가 간 교역량(kg)을 기준으로 상위 50개 교역을 시각화에 이용하였다. 다만, 노드(Node)는 해당 국가(지역)의 총 수출·입 규모(중량)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셋째, 미국의 이중적 교역구조가 나타난다. 미국은 2024년 현재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며 주요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양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 이는 자국 내 정제 시설이 증질유 처리에 최적화된 반면, 셰일 오일은 주로 경질유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⁶,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등으로부터 증질 원유(Heavy Crude)를 지속적으로 수입하며 자국 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넷째, 글로벌 원유 수요의 중심축이 서구 선진국에서 아시아로 이동하였다. 2010년 EU와 미국이 최대 수입 노드(Node)를 형성했던 것과 달리, 2024년에는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요처로 부상하였다. 다만, 주요 산유국들의 수출선(Link)이 아시아 시장으로 집중되는 양상은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호르무즈-말라카 해협 등 주요 해상 물류 거점의 안정성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⁷

다섯째, 2024년 원유 교역 네트워크에서 중국은 가장 다양한 링크와 거대한 수요 노드로 확인된다. 중동(약 44%)과 러시아(약 20%)가 중국 원유 수입의 64%를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은 중동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남미(브라질,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앙골라), 동남아시아 등지로 수입선을 넓히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⁸ 중동이나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분리된 공급원으로서 남미와 아프리카는 포트폴리오 분산의 핵심 축이다. 이러한 다각화된 구조는 특정 지역의 정세 불안 발생 시 대체 경로를 가동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다음으로 글로벌 석유제품 교역구조의 특징을 살펴보면, 석유제품 교역 역시 원유 시장의 재편과 맞물려 복잡한 다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 허브인 EU 외에도 중동이 대규모 정제 설비를 확충하며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인도가 석유제품을 가공하여 서구권에 우회 공급하는 등의 교역 흐름이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미국은 석유제품 시장에서도 수출과 수입 노드 모두에서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석유제품이 중남미와 EU로 향하는 흐름은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망 내에서 미국의 전략적 역할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 노드 양쪽에 유의미한 크기로 등장하는데, 이는 제품별(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 수급 조절과 역내 가공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여 고부가가치 석유제품으로 가공·수출하는 ‘아시아의 핵심 정제 허브’로서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그래프상에서 한국은 호주, 싱가포르, 중국, 미국 등 광범위한 지역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주요 수출국 노드에 위치한다. 특히 호주 등으로 향하는 두꺼운 흐름은 한국 석유제품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보여준다.

주요 수입국의 공급망 안정성 분석

(1) 분석방법; 공급원 집중도(HHI)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⁹는 교역구조의 집중 수준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이다. 이 지수는 한 국가의 대외 무역이 주요 교역 상대국에 어느 정도 집중되어 있는지를 측정한다. HHI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수입할수록 값이 낮아지며, 이를 통해 수입 다변화 수준이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표는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하더라도, 그 국가들이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의 위험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높은 중동 지역(지표명: ME Cluster), 수송로 리스크를 고려하여 호르무즈(Hormuz) 해협 주변을 포함한 호르무즈 해협 내 지역(지표명: Hormuz),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내 지역에 있지만 파이프라인을 통해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를 제외한 호르무즈 해협 내 지역(지표명: Hormuz-SU) 등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⁶ 2024년 기준으로 캐나다는 미국 총수입액의 59%를 차지한다.

⁷ IEA(2025). World Energy Outlook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아시아로의 교역집중도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⁸ NDRC(2021), p.248. 중국의 제 14차 5개년 계획에는 석유와 가스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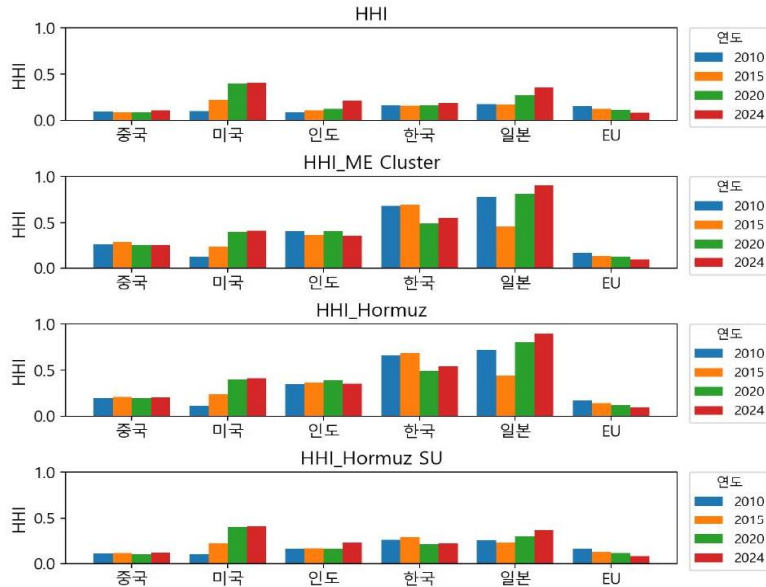
⁹ $HHI = \sum_{i=1}^N S_i^2$

(2) 주요 수입국의 공급원 집중도

<그림 2>는 원유의 공급원 집중도 지표별 산출 결과를 보여준다. 원유의 표준 HHI 지표는 주요 수입국 대다수가 0.4 미만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0.2 수준으로 나타나 공급 다변화 수준이 매우 양호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정학적·물리적 리스크를 반영한 지표의 분석 결과는 표준 HHI 지표와 달리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중동을 단일 공급원으로 간주한 지표(ME cluster)의 경우 우리나라의 집중도는 0.5 이상으로 나타나 중동 지역에 대한 높은 편중성을 보여준다. 이는 단순히 수입국 수가 많더라도, 공급망이 분쟁 가능 지역에 물리적으로 결속되어 있어 실질적인 공급망 복원력이 낮음을 의미한다. 중동 지역에 대한 높은 지리적 편중성을 반영한 이 지표는 중동 의존의 구조적 위험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지표이다.

<그림 2> 주요 수입국의 지표별 원유(HS 2709) 공급원 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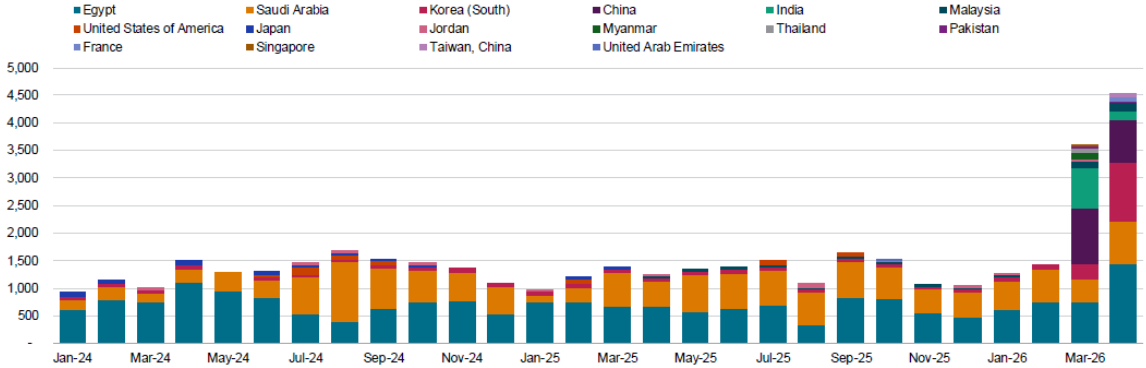
석유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반영한 지표(HHI_Hormuz)는 중동 지역을 단일 공급원으로 한 지표(ME cluster)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중동 지역이 호르무즈 해협 내 지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중동 지역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내 국가에서 도입하기 때문이다.

사우디와 UAE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사우디는 페르시아만 인근 아브카이크(Abqaiq)와 홍해 안부(Yanbu)를 잇는 East-West 원유 파이프라인(설계용량 500만 b/d)을 보유하고 있으며, UAE는 내륙 유전→오만만의 푸자이라(Fujairah) 수출터미널로 연결된 180만 b/d 파이프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할 수 있다.¹⁰ Hormuz-SU 지표는 우회 파이프라인을 반영하여 사우디와 UAE를 호르무즈 해협 내 국가군에 포함하지 않고 도출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집중도가 유의미하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들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하다는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수치 자체의 중요성보다 공급망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미국-이란 전쟁 이후 안부(Yanbu)항은 사우디 원유의 핵심 우회 수출항으로 급부상했으며, 2026년 4월 13일 기준 4월 평균 선적량은 약 4.5 million b/d에 달했다(<그림 3> 참조). 목적지는 Egypt/SUMED 경유 물량과 중국·인도·한국·일본 등 아시아항 물량이 중심이다. 이는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단순한 공급처 다변화를 넘어, 물리적 수송로의 안전성 확보와 인프라 기반의 우회 전략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의 핵심 변수임을 보여준다.

¹⁰ EIA(2025.6.16.).(검색일: 2025.12.29.)

<그림 3> 사우디 Yanbu항(호르무즈 해협 우회로)의 원유 선적량, 목적지별 추이



자료: S&P Global(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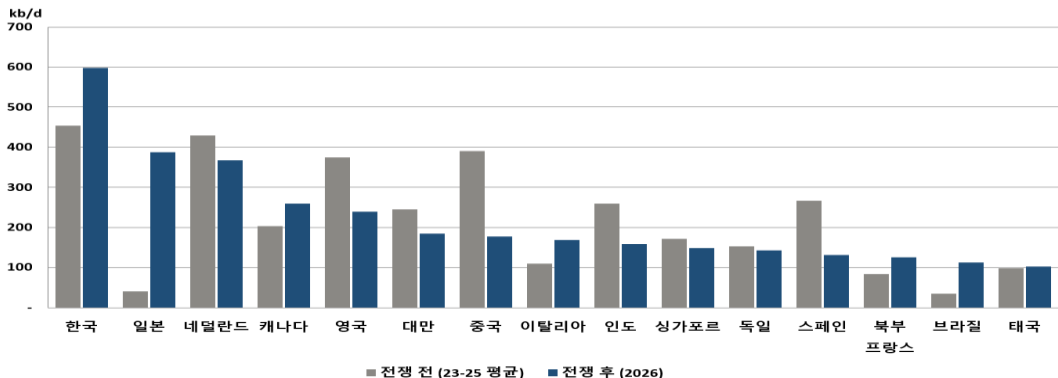
(3) 도입선 다변화 정책의 성과: 미-이란 전쟁 전후 분석

최근 발발한 미국-이란 전쟁은 글로벌 석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노출했다. 개전 직후인 3~4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석유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는 폭등하였고, 5월말까지도 배럴당 100달러(두바이유 기준) 이상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중동발 공급 충격이 현실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내 대체 공급원으로서 미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우리나라는 그간 원유 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통해 수입부과금을 활용한 운송비 지원을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2025년 기준 북미산 원유 도입 비중을 23%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특히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정부는 고시를 개정하여 4~6월 통과되는 다변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실효성은 전쟁 이후의 실제 도입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다. [그림 4]는 3~4월 기준 미국산 원유의 국가별 도입 물량을 보여준다. 전쟁 이후 두 달 동안 미국의 총수출 물량이 약 8% 증가한 가운데,¹¹수입국별 도입량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3~4월 중 일평균 약 60만 배럴(b/d)의 미국산 원유를 도입하며 수입국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도입 경쟁이 심화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 평균 도입량보다 3~4월 도입량이 오히려 약 33%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도입선 다변화 정책이 단순한 수치상의 목표를 넘어, 실제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대체 물량을 확보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임을 입증한다.

<그림 4> 3~4월 기준, 미국산 원유 국가별 도입 물량



자료: Eikon 활용 저자 작성

¹¹ 미국 수출 물량은 개전 이후 약 두 달간 약 8%(전년동기로는 6%) 증가하였다(수출량(kb/d): 2월 4,159(3년 평균), 3월 3,794, 4월 5,153, 자료: EIA(검색일: 2026.5.11.)).

시사점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유 공급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선 다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지형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원유 공급원 집중도는 여전히 높다는 점이 지표로 확인된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나 핵심 수송로의 초크포인트 취약성을 반영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유 공급구조는 매우 취약하다.

둘째, 기존 도입선 다변화 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위기 유형별 ‘입체적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변화 노력이 미국 등 특정 지역으로 재편될 경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북미의 자연재해(멕시코만 허리케인 등)나 예상치 못한 사고 리스크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단순한 지역적 분산을 넘어, 공급국별 위기 특성(지정학, 자연재해, 기술적 사고 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배치하여 특정 지역의 돌발 변수가 국가 전체 공급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가 석유제품의 핵심 공급자라는 구조적 지위를 레버리지(Leverage)로 삼아 주요국들의 공급망 협력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단순 수입국에 머무르지 않고 원유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공하여 호주, 일본, 미국 등으로 공급한다. 특히 호주 등 역내 주요국으로 향하는 두꺼운 수출 흐름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망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김태현. (2025). 세계 석유·가스 교역 변화와 한국의 공급망 리스크 분석. 수시연구보고서 25-06. 에너지경제연구원.

Energy Institute. (2025).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IEA. (2025). World Energy Outlook.

NDRC. (2021). Strengthening Safeguards for Our Nation’s Economic Security In The 14th Five-Year Plan and Long-Range Objectives Through 2035.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2025.11.19.). Modest price lift supports non-OPEC growth; OPEC to stay disciplined through 2035.

S&P Global. (2026.5.12.). Crisis at the Chokepoint – Hormuz Transit Remains Stalled.

EIA. (2024.3.14.). Today in Energy, IN-DEPTH ANALYSIS, Four countries could account for most near-term petroleum liquids supply growth.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61583>. (검색일: 2025.12.29.)

EIA. (2025.6.16.). Today in Energy: Amid regional conflict, the Strait of Hormuz remains critical oil choke point. <https://www.eia.gov/todayinenergy/detail.php?id=65504>. (검색일: 2025.12.29.)

EIA, Weekly U.S. Export of Crude Oil.

<https://www.eia.gov/dnav/pet/hist/LeafHandler.ashx?n=PET&s=WCREXUS2&f=W>. (검색일: 2026.5.11.)

LSEG. Oil Flows. Refinitiv Eikon. <https://workspace.refinitiv.com/web/> (검색일: 2026.5.8.)

United Nations. UN Comtrade Database. <https://comtradeplus.un.org/> (검색일: 2026.2.13.)

국제 에너지 가격

국제 에너지 시장

□ 4월 국제유가, 연료탄, JKM은 전월 대비 각각 17.8%, 0.1%, 1.9%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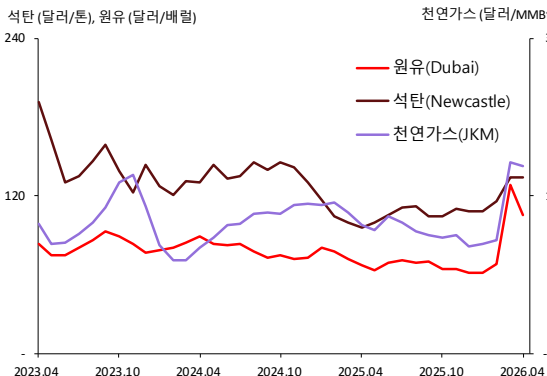
- 4월 국제유가는 미국-이란의 임시 휴전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전월 대비 17.8% 하락
 - 4월 7일 미국과 이란의 임시 휴전과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임시 휴전 발표로 인해 국제 원유 가격이 급락
 -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무역 차질이 지속되어 원유 육상 재고는 4월 동안 약 1억 7000만 배럴이 감소하였으며, 해상 재고는 5300만 배럴 증가
- 국제 연료탄 가격은 세계 최대 연료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의 수출 물량 제한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LNG 발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9.5% 상승
- 국제 가스 가격의 경우 JKM, TTF, Henry Hub는 전월 대비 각각 1.9%, 14.0%, 11.7% 하락
 - 온화한 4월 동아시아, 유럽 기후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해 JKM과 TTF는 전월 대비 하락
 - 2026년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은 역대 최고치인 일평균 1,189억 입방피트로 예측되며, 미국 국내 천연가스 생산량 증가로 인해 Henry Hub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1.6% 하락

국제 에너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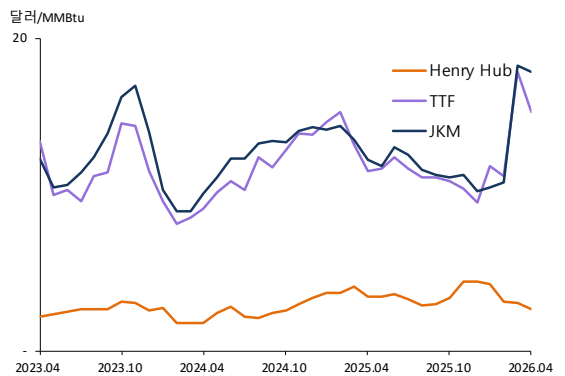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원유 (달러/배럴)	82.1 (-14.8)	79.6 (-3.0)	69.4 (-12.8)	64.5 (-0.8)	62.1 (-3.8)	62.0 (-0.1)	68.4 (10.4)	128.5 (87.9)	105.7 (-17.8)
석탄 (달러/톤)	174.7 (-51.1)	135.6 (-22.3)	106.3 (-21.6)	110.4 (5.8)	108.6 (-1.6)	108.3 (-0.3)	116.0 (7.2)	134.6 (16.1)	134.5 (-0.1)
천연가스 (달러/MMBtu)									
Henry Hub	2.7 (-59.1)	2.4 (-9.4)	3.6 (50.2)	4.5 (33.2)	4.4 (-1.6)	4.3 (-2.9)	3.1 (-26.7)	3.0 (-2.9)	2.7 (-11.7)
TTF	13.0 (-67.6)	11.0 (-15.9)	11.9 (8.8)	10.4 (-4.4)	9.5 (-8.8)	11.8 (24.5)	11.2 (-4.9)	17.8 (58.8)	15.3 (-14.0)
JKM	14.4 (-57.4)	11.9 (-17.7)	12.3 (3.1)	11.2 (1.2)	10.2 (-9.0)	10.4 (1.9)	10.8 (3.7)	18.3 (68.8)	17.9 (-1.9)

주: 원유는 두바이유, 석탄은 호주 뉴캐슬 연료탄 기준. 석탄과 천연가스는 선물 가격.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Group

국제 에너지 가격



국제 천연가스 가격



국내 에너지 수입 가격

□ 3월 원유, LNG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각각 16.2%, 2.0% 상승, 석탄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4.9% 하락

- 3월 원유 수입 단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전월 대비 16.2% 증가
 - 2월 28일 발발한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역대 최대 규모의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원유 수입 가격이 전월 대비 폭등
 - ※ IEA에 따르면 3월 전세계 원유 공급량은 일평균 1,010만 배럴 감소
 - IEA 회원국들은 3월 11일 합의를 통해 약 4억 배럴의 비축유를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원유 공급 차질 규모가 방출량을 압도하여 유가 상승을 억제하지는 못함
- 석탄 수입 단가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원료탄 수입 비중이 감소하여 전월 대비 4.9% 하락
- LNG 수입 가격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운임 상승과 물량 부족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0% 상승
 - 2025년 초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LNG 수출량 증가로 인해 LNG 수입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5% 하락
- 3월 프로판 수입 가격과 부탄 수입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18.1%, 14.1% 상승
 - 2월 23일 사우디 주아미마 터미널 붕괴 사고로 인한 사우디산 LPG 수출 중단과 중동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운송 비용 급증으로 인해 LPG 수입 가격은 전월 대비 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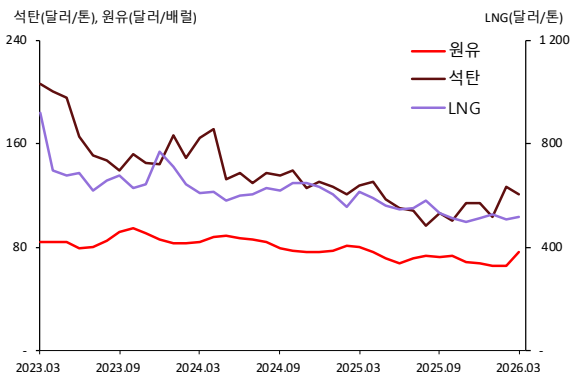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6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원유 (달러/배럴)	85.9 (-16.1)	82.8 (-3.6)	73.3 (-11.4)	73.3 (0.8)	68.8 (-6.1)	67.6 (-1.7)	65.8 (-2.8)	65.2 (-0.9)	75.8 (16.2)
석탄 (달러/톤)	168.7 (-25.3)	142.3 (-15.7)	113.9 (-20.0)	100.7 (-4.8)	113.5 (12.8)	113.0 (-0.4)	102.8 (-9.0)	126.4 (22.9)	120.2 (-4.9)
LNG (달러/톤)	780.5 (-26.0)	628.5 (-19.5)	555.5 (-11.6)	514.1 (-3.6)	499.4 (-2.9)	513.9 (2.9)	524.5 (2.1)	507.5 (-3.2)	517.6 (2.0)
프로판 (달러/톤)	618.5 (-18.2)	620.8 (0.4)	552.8 (-11.0)	529.0 (1.5)	495.2 (-6.4)	525.2 (6.0)	539.3 (2.7)	565.3 (4.8)	667.6 (18.1)
부탄 (달러/톤)	607.9 (-19.7)	628.3 (3.4)	553.6 (-11.9)	551.2 (2.7)	516.7 (-6.3)	516.0 (-0.1)	565.3 (9.6)	601.2 (6.3)	685.7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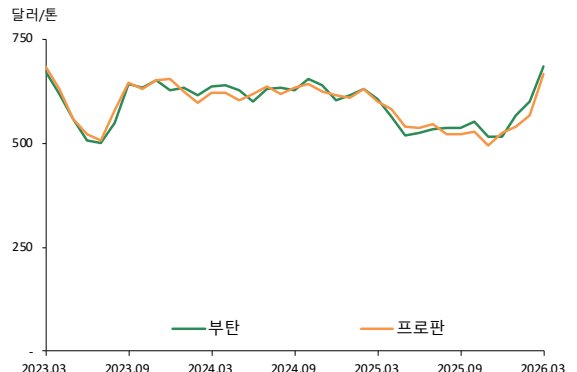
주: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한국무역협회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



국내 LPG 수입 단가



국내 에너지 가격

석유제품 가격

□ 4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각각 8.1%, 8.2%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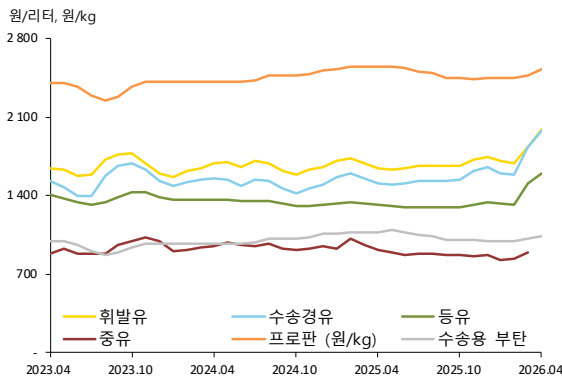
- 중동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 폭등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방 압력으로 작용
 -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연장 시행
 - ※ 3월 27일 2차 고시 기준 휘발유 및 경유 상한선으로 각각 리터 당 1,934원, 1,923원을 적용하였으며, 4월 10일 3차 고시와 4월 24일 4차 고시에서 가격을 추가로 올리지 않고 2차 고시 수준에서 동결
- 1달러 당 1,500원을 돌파한 3월 말과 4월 초의 고환율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
-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를 7월까지 연장시행하고, 휘발유와 경유 세금 인하율을 각각 15%, 20%로 적용
 -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 당 698원, 경유 유류세는 리터 당 436원을 적용
- SK가스과 E1 등의 LPG 공급사의 가격 인상 결정으로 프로판 및 부탄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2.2%, 2.7% 증가
 - 국제 LPG 가격 상승과 환율 상승 등의 가격 인상요인을 반영하였으나,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로 상승폭 제한

국내 석유제품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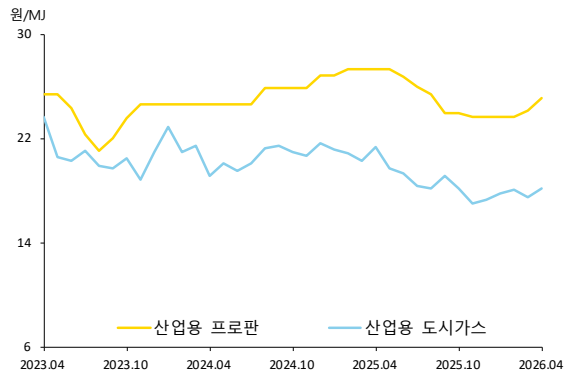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휘발유 (원/리터)	1 643.3 (-9.3)	1 646.8 (0.2)	1 680.3 (2.0)	1 718.1 (3.3)	1 740.2 (1.3)	1 704.4 (-2.1)	1 688.6 (-0.9)	1 836.4 (8.8)	1 986.1 (8.1)
수송용 경유 (원/리터)	1 558.4 (-15.5)	1 502.6 (-3.6)	1 552.9 (3.3)	1 619.1 (5.4)	1 650.5 (1.9)	1 600.1 (-3.1)	1 587.3 (-0.8)	1 829.0 (15.2)	1 979.3 (8.2)
등유 (원/리터)	1 399.5 (-5.9)	1 344.7 (-3.9)	1 312.2 (-2.4)	1 316.0 (1.6)	1 334.3 (1.4)	1 323.2 (-0.8)	1 312.2 (-0.8)	1 502.7 (14.5)	1 596.3 (6.2)
중유 (원/리터)	931.5 (-16.5)	938.5 (0.8)	901.2 (-4.0)	855.3 (-1.8)	873.2 (2.1)	828.6 (-5.1)	834.6 (0.7)	893.6 (7.1)	- -
프로판 (원/kg)	2 372.0 (-4.4)	2 446.2 (3.1)	2 501.1 (2.2)	2 442.6 (-0.1)	2 445.0 (0.1)	2 447.3 (0.1)	2 445.4 (-0.1)	2 470.5 (1.0)	2 525.1 (2.2)
수송용 부탄 (원/리터)	957.4 (-11.5)	995.3 (4.0)	1 044.1 (4.9)	998.3 (-0.1)	998.1 (-0.0)	998.2 (0.0)	998.0 (-0.0)	1 011.7 (1.4)	1 039.0 (2.7)

주: 휘발유, 경유, 부탄은 주유소/충전소 가격, 등유는 실내등유 가격, 중유는 대리점 가격, 프로판은 판매소 가격.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국내 석유제품 가격



산업용 프로판 도시가스 가격 비교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

□ 4월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업무난방용과 산업용은 전월 대비 상승

- 주택용과 일반용 도매요금의 경우 2024년 7월 인상 이후 변화가 없으며, 소매요금은 2025년 7월 인상 결정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
 - ※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서울지역 도시가스 요금표를 기준으로 함
-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가 전월 대비 0.6원/Mcal 상승한 15.8원/Mcal로 조정되어 전월 대비 각각 3.1%, 3.6% 상승
 - ※ 원료비는 소매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2개월(각 홀수월에 산정), 상업용(업무난방용, 산업용 등) 원료비는 1개월 주기로 산정. 공급비용은 총괄원가에서 원료비를 제외한 원가로서 1년에 1회(도매 5월, 소매 7월) 조정

□ 지역난방 열요금은 2024년 7월에 2023년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요인 반영으로 10.6% 인상된 후 줄곧 동결

- 열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 인상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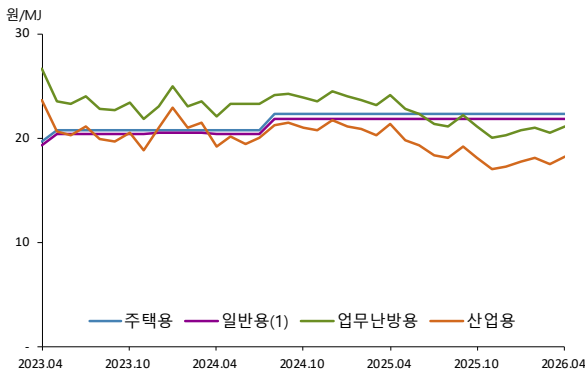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도시가스 (원/MJ)									
주택용	20.4 (22.8)	21.4 (4.9)	22.3 (4.4)	22.4 -	22.4 -	22.4 -	22.4 -	22.4 -	22.4 -
일반용(1)	20.1 (23.2)	21.0 (4.6)	21.8 (3.9)	21.9 -	21.9 -	21.9 -	21.9 -	21.9 -	21.9 -
업무난방용	26.0 (-9.5)	23.6 (-8.9)	22.2 (-6.2)	20.1 (-5.2)	20.3 (1.3)	20.8 (2.1)	21.1 (1.4)	20.5 (-2.5)	21.2 (3.1)
산업용	23.3 (-10.1)	20.9 (-10.5)	19.2 (-7.8)	17.1 (-6.0)	17.3 (1.5)	17.7 (2.5)	18.0 (1.7)	17.5 (-2.9)	18.2 (3.6)
열에너지 (원/Mcal)									
주택용	96.1 (29.5)	107.0 (11.3)	112.3 (5.0)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업무용	124.8 (29.5)	138.9 (11.3)	145.8 (5.0)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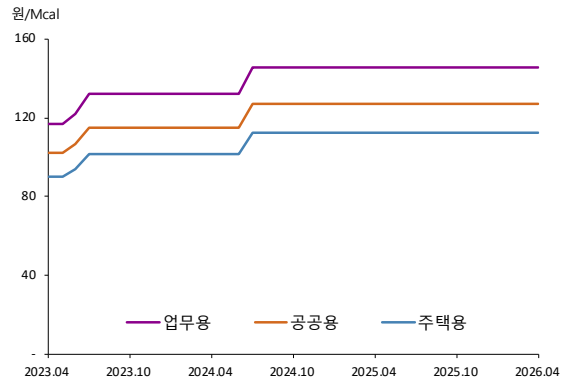
주: 월별 가격은 월말 가격을 기준으로 함. 열 요금은 난방용 단일요금 기준(부가세, 기본요금 제외)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서울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요금



열에너지 요금



전기 요금 및 연료비 단가

□ 4월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은 전월 수준을 유지, 산업용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개편안” 적용

- 주택용 전력량 요금, 일반용 봄·가을철 전력량요금은 2023년 5월 요금 조정 이후 동일 수준 유지
- 산업용(을) 전력량 요금의 경우, 4월 16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제 개편안” 시행
 - 봄·여름·가을철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부하 요금이 적용되던 평일 11시~15시 요금이 중간부하로 변경되고, 중간부하가 적용되던 18시~21시 요금은 최대부하로 변경되며, 봄·가을철에는 주말 할인을 적용
 - 경부하 요금은 kWh당 5.1원 인상하고 최대부하 요금은 kWh당 15.4원 인하하여 전기 요금 부담 완화
 - 일반용, 교육용 등 기타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종별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확대 적용 결정

□ 4월 LNG, 원자력 발전 연료비 단가는 각각 4.8%, 0.1% 상승, 유연탄 발전 연료비 단가는 0.9% 하락

- LNG와 유연탄의 발전 연료비 상대 단가(LNG/유연탄)는 1.60으로 전월 대비 5.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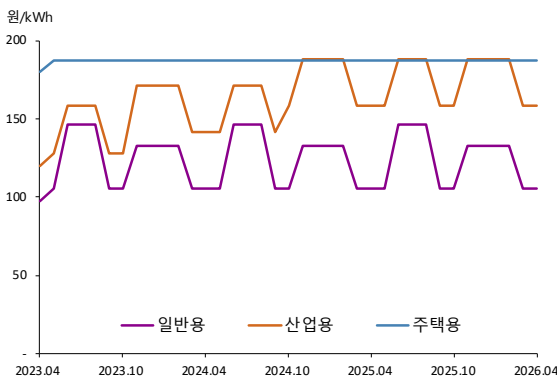
전기요금 및 발전 연료비 단가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기요금 (원/kWh)									
주택용	185.4 (17.9)	188.0 (1.4)	188.0 -	188.0 -	188.0 -	188.0 -	188.0 -	188.0 -	188.0 -
일반용	122.4 (29.9)	125.0 (2.2)	125.0 (-0.0)	133.0 (25.6)	133.0 -	133.0 -	133.0 -	105.9 (-20.4)	105.9 -
산업용	145.5 (34.5)	163.6 (12.5)	176.2 (7.7)	188.8 (18.9)	188.8 -	188.8 -	188.8 -	158.8 (-15.9)	158.8 -
발전 연료비단가 (원/kWh)									
LNG	179.6 (-12.3)	141.1 (-21.4)	124.1 (-12.0)	110.1 (-4.7)	110.1 (0.0)	117.7 (6.9)	118.8 (0.9)	114.9 (-3.3)	120.4 (4.8)
유연탄	101.0 (-8.5)	76.3 (-24.5)	73.7 (-3.4)	65.9 (1.2)	66.0 (0.2)	70.7 (7.2)	71.3 (0.8)	75.8 (6.3)	75.2 (-0.9)
원자력	6.37 (0.2)	6.41 (0.6)	6.39 (-0.3)	6.42 (0.1)	6.43 (0.1)	6.43 (0.1)	6.44 (0.2)	6.46 (0.2)	6.47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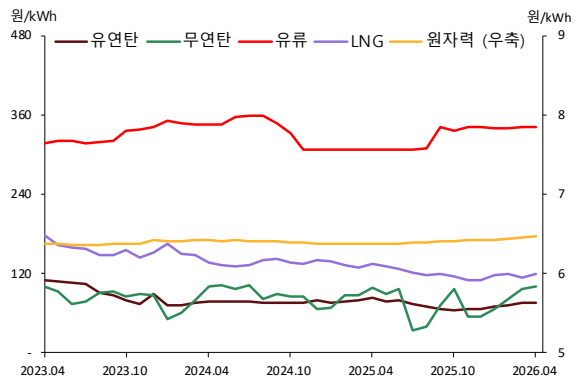
주: 전기 요금은 주택용(고압, 2구간 전력량 요금), 일반용(집, 저압), 산업용(을, 고압B 중간부하)을 사용하며 월말 가격을 기준으로 함.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계약종별 전기 요금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



SMP 및 REC 가격

□ 4월 계통한계가격(SMP)은 전월 대비 8.1% 상승¹²

- 전국과 육지 SMP는 전월 대비 8.1% 상승하였으며, 제주 SMP는 전월 대비 9.8% 상승

※ 계통한계가격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이며,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투입되는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산정

□ 4월 REC 현물 가격은 7.16만원/REC로 전월 대비 1.7% 상승

- REC 거래량은 226.4만 REC로 전월 대비 18.7% 증가, 거래대금은 1,621.9억 원으로 전월 대비 20.8% 증가
- 2026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은 15.0%로 전년 대비 1.0%p 상승
 - 2026년 REC 발급량은 9,429만 REC로 2025년 RPS 의무공급량 대비 7.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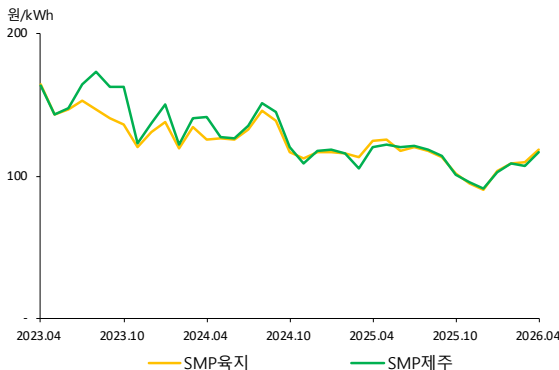
SMP 및 REC 가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2026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SMP(통합) (원/kWh)	167.1 (-15.6)	128.4 (-22.9)	112.7 (-11.9)	94.8 (-6.6)	90.4 (-4.6)	103.5 (14.5)	108.5 (4.8)	110.0 (1.4)	118.9 (8.1)
육지	167.0 (-15.4)	128.3 (-22.9)	112.7 (-11.9)	94.8 (-6.6)	90.4 (-4.6)	103.5 (14.5)	108.5 (4.8)	110.0 (1.4)	118.9 (8.1)
제주	176.9 (-30.3)	133.5 (-24.3)	112.5 (-15.4)	95.8 (-5.3)	91.0 (-5.0)	102.9 (13.1)	108.5 (5.4)	106.8 (-1.6)	117.2 (9.8)
SMP 결정 비중 (%)									
LNG	82.5	93.3	83.3	74.0	61.7	77.8	87.6	91.4	-
유연탄	14.9	6.1	16.1	24.7	38.0	21.4	11.3	8.2	-
유류	2.4	0.1	0.1	0.0	0.0	0.0	0.0	0.0	-
REC 현물가격 (천원/REC)	72.8 (27.9)	76.2 (4.6)	71.9 (-5.6)	72.1 (-0.2)	72.3 (0.2)	71.7 (-0.9)	71.3 (-0.5)	70.4 (-1.2)	71.6 (1.7)
REC 거래량 (만 REC)	1 446.1 (5.2)	1 372.1 (-5.1)	1 879.5 (37.0)	165.2 (0.3)	191.8 (16.1)	158.1 (-17.6)	125.7 (-20.5)	190.7 (51.8)	226.4 (1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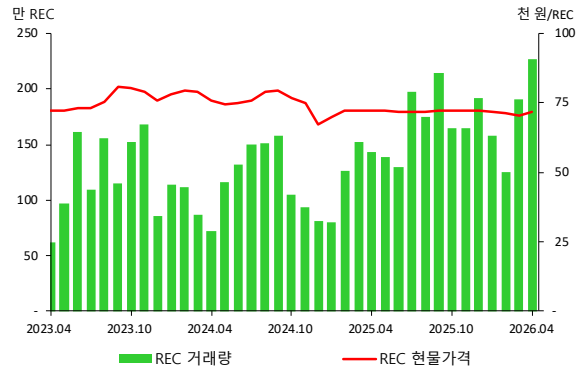
주: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전력거래소

SMP 가격



REC 현물가격 및 거래량



¹² 당월 호를 작성하는 시점에 4월 SMP 결정 비율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연료비 단가 변화 외에 추가적 요인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

일차에너지소비 및 최종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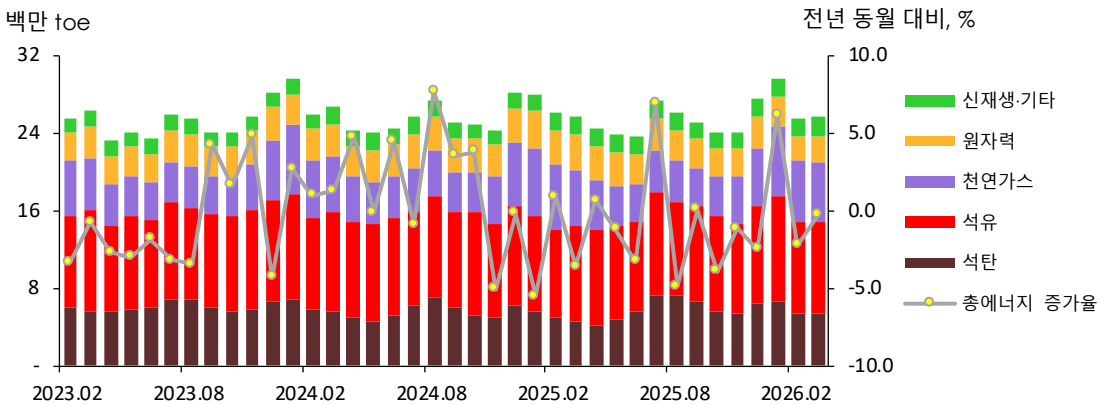
□ 3월 일차에너지 소비는 석탄, 가스, 신재생·기타의 증가에도 석유, 원자력 감소로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

- 석탄 소비는 발전과 산업 부문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8.5% 증가. 발전 부문은 원전 발전 감소로 석탄발전이 증가하며 34.9% 증가. 산업 부문은 철강업의 원료탄 소비 증가로 3.8% 증가
- 가스 소비는 발전, 산업에서 증가하고 건물에서는 감소하며 8.4% 증가. 발전용은 침두부하 증가로 13.1% 증가. 산업용은 석유화학·철강 등에서 급증하며 17.5% 증가, 건물용은 난방 소비 감소로 4.8% 감소
- 석유 소비는 원료용 납사 소비 감소 및 수송 부문의 휘발유, 경유 소비 감소로 전체적으로 5.4% 감소
- 원자력 발전은 봄철 예방정비 등으로 예방정비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여 25.9%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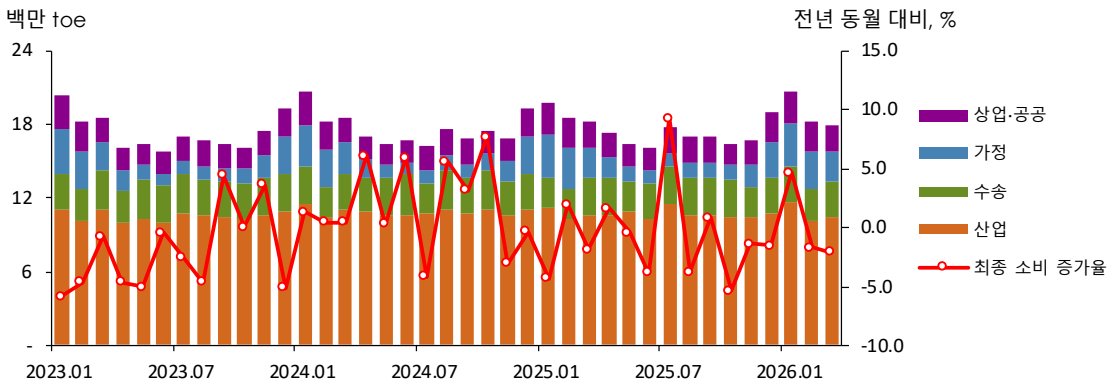
□ 에너지 최종 소비는 산업, 수송, 건물 부문에서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1% 감소

- 산업 부문 소비는 반도체 수출 호조 및 철강 생산 회복에도 중동 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
- 수송 부문 소비는 유가 급등에 따른 휘발유, 경유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
- 건물 부문 소비는 가정 부문 난방 에너지 수요와 상업 부문 전기 소비가 줄며 전년 동월 대비 2.8% 감소
- 에너지원별 최종 소비는 석유, 전기, 열은 감소한 반면, 석탄, 가스, 신재생·기타는 증가

일차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최종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부록> 에너지 가격 및 수급 통계

국제 에너지 가격

	2024년		2025년				2026년			
			1~4월	2월	3월	4월	1~4월	2월	3월	4월
원유 (달러/배럴)										
WTI	75.7	64.8	69.3	71.2	67.9	63.0	78.5	64.5	91.0	98.1
	(-2.4)	(-14.4)	(-12.1)	(-5.2)	(-4.6)	(-7.3)	(13.2)	(7.1)	(41.0)	(7.8)
Dubai	79.6	69.4	74.6	77.9	72.5	67.7	91.1	68.4	128.5	105.7
	(-3.0)	(-12.8)	(-10.4)	(-3.1)	(-7.0)	(-6.5)	(22.1)	(10.4)	(87.9)	(-17.8)
Brent	79.8	68.2	72.8	75.0	71.5	66.5	84.0	69.4	99.6	102.5
	(-2.9)	(-14.5)	(-12.9)	(-4.3)	(-4.7)	(-7.0)	(15.4)	(7.2)	(43.6)	(2.9)
수입단가 (CIF)	82.8	73.4	78.6	80.9	79.9	76.1	68.9	65.2	75.8	-
	(-3.6)	(-11.4)	(-6.9)	(4.3)	(-1.3)	(-4.7)	(-12.3)	(-0.9)	(16.2)	-
천연가스 (달러/MMBtu)										
일본 수입 가격	12.8	12.0	12.8	12.8	12.5	12.7	11.5	11.3	11.4	11.7
	(-10.7)	(-6.3)	(-3.5)	(-3.1)	(-1.9)	(1.1)	(-10.3)	(-1.4)	(0.9)	(2.2)
Henry Hub	2.4	3.6	3.8	3.7	4.1	3.4	3.3	3.1	3.0	2.7
	(-9.4)	(50.4)	(86.7)	(0.5)	(10.6)	(-17.2)	(-12.7)	(-26.7)	(-2.9)	(-11.7)
NBP	10.8	11.8	13.6	15.2	13.0	11.3	13.9	10.5	17.9	15.0
	(-14.3)	(8.6)	(55.5)	(1.2)	(-14.1)	(-13.6)	(2.0)	(-13.6)	(70.0)	(-16.3)
TTF	10.9	11.9	13.7	15.3	13.2	11.5	14.1	11.2	17.8	15.3
	(-16.1)	(9.1)	(54.7)	(4.1)	(-13.6)	(-13.1)	(2.9)	(-4.9)	(58.8)	(-14.0)
JKM	11.9	12.3	13.6	14.4	13.5	12.2	14.4	10.8	18.3	17.9
	(-17.8)	(3.3)	(41.9)	(1.7)	(-6.3)	(-9.4)	(5.8)	(3.7)	(68.8)	(-1.9)
수입단가 (달러/톤, CIF)	628.5	555.3	591.9	556.7	612.3	591.9	-	507.5	517.6	-
	(-19.6)	(-11.6)	(-8.2)	(-8.2)	(10.0)	(-3.3)	-	(-3.2)	(2.0)	-
석탄 (달러/톤)										
호주 뉴캐슬 연료탄	135.6	106.3	104.6	105.0	100.1	96.4	123.3	116.0	134.6	134.5
	(-22.4)	(-21.6)	(-18.2)	(-10.1)	(-4.7)	(-3.7)	(17.9)	(7.2)	(16.0)	(-0.1)
수입단가 (CIF)	143.2	114.4	126.3	120.9	127.6	130.2	-	127.0	120.6	-
	(-15.6)	(-20.1)	(-22.4)	(-4.4)	(5.6)	(2.0)	-	(23.4)	(-5.0)	-
석유제품 (달러/배럴)										
휘발유	93.0	80.8	82.7	86.3	81.0	76.8	105.3	77.3	137.5	133.5
	(-5.8)	(-13.2)	(-18.1)	(-0.5)	(-6.1)	(-5.2)	(27.4)	(6.0)	(77.8)	(-2.9)
경유	96.3	87.7	88.8	91.7	86.5	81.8	140.2	89.9	192.8	195.5
	(-9.6)	(-8.9)	(-15.0)	(-3.9)	(-5.7)	(-5.4)	(57.8)	(9.1)	(114.5)	(1.4)
중유	74.0	66.2	73.2	76.7	72.7	68.0	84.8	67.1	109.8	104.8
	(3.1)	(-10.5)	(-0.7)	(1.8)	(-5.2)	(-6.6)	(15.9)	(16.4)	(63.7)	(-4.6)
프로판	610.4	565.0	622.5	635.0	615.0	615.0	591.3	545.0	545.0	750.0
	(6.2)	(-7.4)	(-0.2)	(1.6)	(-3.1)	-	(-5.0)	(3.8)	-	(37.6)
부탄	607.5	546.3	612.5	625.0	605.0	605.0	600.0	540.0	540.0	800.0
	(5.3)	(-10.1)	(-3.2)	(1.6)	(-3.2)	-	(-2.0)	(3.8)	-	(48.1)
납사	72.3	64.4	69.1	72.1	69.4	61.9	90.6	65.7	115.8	121.6
	(4.5)	(-10.8)	(-6.5)	(-1.0)	(-3.8)	(-10.7)	(31.2)	(10.9)	(76.3)	(5.0)

주 1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휘발유는 95RON, 경유는 0.001%, 중유는 고유황중유(180cst/3.5%), 프로판과 부탄은 CP 기준 값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한국무역협회

국내 에너지 가격

	2024년		2025년				2026년			
			1~4월	2월	3월	4월	1~4월	2월	3월	4월
석유제품										
휘발유 (원/리터)	1 646.6 (0.2)	1 680.6 (2.1)	1 693.3 (4.0)	1 728.3 (1.1)	1 688.9 (-2.3)	1 646.7 (-2.5)	1 803.9 (6.5)	1 688.6 (-0.9)	1 836.4 (8.8)	1 986.1 (8.1)
등유 (원/리터)	1 344.7 (-3.9)	1 312.3 (-2.4)	1 329.8 (-2.5)	1 341.4 (1.0)	1 332.9 (-0.6)	1 316.9 (-1.2)	1 433.6 (7.8)	1 312.2 (-0.8)	1 502.7 (14.5)	1 596.3 (6.2)
경유 (원/리터)	1 502.6 (-3.6)	1 553.2 (3.4)	1 556.5 (2.2)	1 594.0 (1.9)	1 555.0 (-2.4)	1 513.2 (-2.7)	1 748.9 (12.4)	1 587.3 (-0.8)	1 829.0 (15.2)	1 979.3 (8.2)
중유 (원/리터)	938.4 (0.7)	901.9 (-3.9)	955.9 (3.4)	1 014.3 (9.3)	963.5 (-5.0)	918.0 (-4.7)	852.3 (-10.8)	834.6 (0.7)	893.6 (7.1)	- -
프로판 (원/kg)	2 446.1 (3.1)	2 501.3 (2.3)	2 540.1 (5.0)	2 547.0 (1.0)	2 545.4 (-0.1)	2 545.5 (0.0)	2 472.1 (-2.7)	2 445.4 (-0.1)	2 470.5 (1.0)	2 525.1 (2.2)
부탄 (원/리터)	995.2 (3.9)	1 044.2 (4.9)	1 070.0 (10.3)	1 073.9 (1.4)	1 073.7 (-0.0)	1 073.6 (-0.0)	1 011.7 (-5.4)	998.0 (-0.0)	1 011.7 (1.4)	1 039.0 (2.7)
도시가스 (원/MJ)										
주택용	21.4 (4.9)	22.3 (4.4)	22.3 (7.5)	22.3 -	22.3 -	22.3 -	22.4 (0.3)	22.4 -	22.4 -	22.4 -
일반용(1)	21.0 (4.6)	21.8 (3.9)	21.8 (6.3)	21.8 -	21.8 -	21.8 -	21.9 (0.3)	21.9 -	21.9 -	21.9 -
업무난방용	23.6 (-9.1)	22.2 (-6.1)	23.8 (1.6)	23.7 (-1.2)	23.2 (-2.3)	24.2 (4.3)	20.9 (-12.1)	21.1 (1.4)	20.5 (-2.5)	21.2 (3.1)
산업용	20.8 (-10.6)	19.2 (-7.7)	20.9 (-1.0)	20.9 (-1.4)	20.3 (-2.6)	21.3 (5.0)	17.9 (-14.6)	18.0 (1.7)	17.5 (-2.9)	18.2 (3.6)
열 (원/Mcal)										
주택용	106.9 (11.3)	112.3 (5.0)	112.3 (10.6)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업무용	138.8 (11.3)	145.8 (5.0)	145.8 (10.6)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공공용	121.3 (11.3)	127.3 (5.0)	127.3 (10.6)	127.3 -	127.3 -	127.3 -	127.3 -	127.3 -	127.3 -	127.3 -

주 :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서울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내 전력 및 REC 가격

	2024년	2025년				2026년				
			1~4월	2월	3월	4월	1~4월	2월	3월	4월
전기 (원/kWh)										
주택용	174.0 (1.6)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일반용	111.1 (2.5)	111.1 -	105.5 -	119.0 -	91.9 (-22.8)	91.9 -	105.5 -	119.0 -	91.9 (-22.8)	91.9 -
산업용	149.6 (13.8)	162.3 (8.5)	159.8 (11.8)	174.8 -	144.8 (-17.2)	144.8 -	159.8 -	174.8 -	144.8 (-17.2)	144.8 -
기후환경요금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연료비조정요금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발전 연료비 단가 (원/kWh)										
유류	342.7 (3.8)	319.1 (-6.9)	308.0 (-11.5)	308.4 (0.2)	308.2 (-0.1)	307.7 (-0.2)	341.8 (11.0)	341.1 (0.0)	342.2 (0.3)	343.0 (0.2)
LNG	141.1 (-21.6)	124.2 (-12.0)	134.2 (-10.5)	132.9 (-4.1)	129.8 (-2.4)	135.6 (4.5)	118.0 (-12.1)	118.8 (0.9)	114.9 (-3.3)	120.4 (4.8)
무연탄	83.9 (-10.1)	73.4 (-12.5)	85.5 (16.8)	88.2 (30.7)	87.4 (-0.8)	98.9 (13.1)	86.7 (1.4)	82.4 (23.2)	96.4 (16.9)	101.1 (5.0)
유연탄	76.2 (-24.6)	73.7 (-3.3)	79.3 (6.9)	78.1 (2.2)	80.1 (2.5)	82.7 (3.3)	73.3 (-7.6)	71.3 (0.8)	75.8 (6.3)	75.2 (-0.9)
원자력	6.41 (0.6)	6.39 (-0.3)	6.37 (-0.7)	6.37 (-0.2)	6.37 -	6.37 -	6.45 (1.2)	6.44 (0.2)	6.46 (0.2)	6.47 (0.1)
SMP (원/kWh)										
SMP육지	128.3 (-23.2)	112.7 (-11.8)	117.8 (-9.0)	116.4 (-0.6)	113.1 (-2.8)	124.6 (10.2)	110.3 (-6.4)	108.5 (4.8)	110.0 (1.4)	118.9 (8.1)
SMP제주	133.5 (-24.5)	112.5 (-15.3)	115.2 (-17.0)	116.1 (-2.4)	105.6 (-9.0)	120.2 (13.9)	108.9 (-5.5)	108.5 (5.4)	106.8 (-1.6)	117.2 (9.8)
SMP통합	128.4 (-23.2)	112.7 (-11.8)	117.8 (-9.1)	116.4 (-0.6)	113.0 (-2.9)	124.6 (10.2)	110.2 (-6.4)	108.5 (4.8)	110.0 (1.4)	118.9 (8.1)
REC										
REC 평균가격 (천원/REC)	76.2 (4.7)	71.9 (-5.6)	71.6 (-8.2)	72.2 (3.4)	72.1 (-0.0)	72.4 (0.4)	71.2 (-0.5)	71.3 (-0.5)	70.4 (-1.2)	71.6 (1.7)
REC 거래량 (천 REC)	1 143.5 (-5.1)	1 566.2 (37.0)	1 256.7 (30.7)	1 260.0 (56.8)	1 528.0 (21.3)	1 435.4 (-6.1)	1 752.3 (39.4)	1 256.8 (-20.5)	1 907.1 (51.8)	2 264.3 (18.7)

주 1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전기요금은 주택용(고압, 201~400kWh), 일반용(갑 I, 저압), 산업용(을), 고압B, 선택II 중간부하) 기준

3 연간 및 월간 SMP는 시간대별 SMP를 시간대별 전력수요예측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이고, 연초 누계(ex. 1~N월) SMP는 월간 SMP를 단순평균한 값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일차에너지 소비

	2024년p	2025년p				2026년p				
		1~3월	1월	2월	3월	1~3월	1월	2월	3월	
석탄 (백만 톤)	112.9 (-6.3)	112.3 (-0.5)	24.9 (-17.2)	9.3 (-17.6)	8.1 (-16.4)	7.5 (-17.4)	28.8 (15.6)	10.9 (17.9)	8.9 (10.3)	8.9 (18.5)
- 원료탄 제외	90.5 (-6.1)	88.8 (-1.8)	19.1 (-21.9)	7.3 (-22.0)	6.3 (-20.7)	5.6 (-23.1)	22.7 (18.9)	8.8 (21.0)	7.0 (12.7)	6.9 (23.0)
석유 (백만 bbl)	803.1 (3.0)	780.5 (-2.8)	191.6 (-5.6)	65.5 (-9.5)	61.0 (-1.6)	65.1 (-5.3)	196.3 (2.4)	73.2 (11.7)	61.5 (0.8)	61.6 (-5.4)
가스 (백만 toe)	61.0 (6.9)	60.4 (-1.0)	19.5 (3.4)	7.0 (-0.1)	6.8 (13.6)	5.7 (-2.7)	19.8 (1.4)	7.2 (2.1)	6.5 (-5.2)	6.2 (8.4)
- 천연가스 (백만 톤)	46.4 (6.7)	46.1 (-0.7)	14.7 (3.1)	5.4 (-1.0)	5.2 (15.7)	4.2 (-4.7)	15.4 (4.7)	6.1 (13.0)	4.7 (-8.1)	4.6 (9.7)
- 도시가스 (십억 m3)	0.3 (56.3)	0.1 (-71.7)	0.2 (48.0)	-0.0 (-60.6)	0.1 (-61.3)	0.2 (145.9)	-0.4 (-285.4)	-0.8 (2005.5)	0.3 (304.2)	0.1 (-26.3)
원자력 (TWh)	188.8 (4.6)	184.7 (-2.2)	52.0 (14.9)	17.9 (19.6)	16.2 (10.3)	17.9 (14.6)	40.0 (-23.1)	14.6 (-18.1)	12.1 (-25.6)	13.2 (-25.9)
신재생·기타 (백만 toe)	19.6 (6.5)	20.9 (6.8)	5.1 (8.2)	1.6 (1.9)	1.7 (21.0)	1.8 (3.4)	5.5 (7.5)	1.9 (15.8)	1.7 (0.1)	1.9 (7.0)
총에너지 (백만 toe)	310.6 (1.8)	305.8 (-1.5)	79.7 (-2.9)	27.9 (-5.5)	26.1 (0.9)	25.7 (-3.6)	80.8 (1.3)	29.7 (6.1)	25.5 (-2.3)	25.6 (-0.3)

주: p는 잠정치, ()는 전년/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석유는 원유 및 정제원료와 석유제품 총에너지 소비를 합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일차에너지 소비 비중

(단위 %)

	2024년p	2025년p				2026년p				
		1~3월	1월	2월	3월	1~3월	1월	2월	3월	
석탄	22.0	22.3	19.0	20.1	18.8	18.0	21.7	22.3	21.2	21.3
석유	39.1	38.2	36.2	35.4	35.2	38.3	36.5	36.7	36.6	36.3
가스	19.7	19.8	24.5	25.1	26.1	22.1	24.5	24.2	25.3	24.0
- 천연가스	19.6	19.7	24.2	25.2	25.9	21.4	25.0	26.9	24.3	23.5
- 도시가스	0.1	0.0	0.3	-0.1	0.2	0.7	-0.5	-2.7	1.0	0.5
원자력	12.9	12.9	13.9	13.6	13.3	14.8	10.5	10.5	10.1	11.0
신재생·기타	6.3	6.8	6.4	5.8	6.6	6.8	6.8	6.3	6.8	7.3
총에너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는 잠정치, 석유는 원유 및 정제원료와 석유제품의 일차에너지 소비를 합한 값, 가스는 천연가스와 도시가스의 일차에너지 소비를 합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최종 소비

(단위: 백만 toe)

	2024년	2025년p				2026년p				
		1~3월	1월	2월	3월	1~3월	1월	2월	3월	
산업	130.7 (3.4)	128.5 (-1.7)	32.1 (-2.9)	11.3 (-2.6)	10.2 (-2.8)	10.7 (-3.5)	32.4 (0.7)	11.7 (3.8)	10.2 (-0.4)	10.5 (-1.4)
수송	35.0 (-1.0)	34.1 (-2.6)	8.0 (-5.5)	2.4 (-19.4)	2.5 (2.9)	3.0 (1.8)	8.4 (5.4)	3.0 (21.7)	2.5 (0.3)	2.9 (-3.5)
가정	22.1 (-1.2)	22.9 (3.6)	9.4 (5.0)	3.5 (1.0)	3.4 (14.9)	2.5 (-1.3)	8.9 (-4.5)	3.4 (-2.3)	3.2 (-7.2)	2.4 (-3.7)
상업·공공	24.6 (0.9)	25.2 (2.3)	7.2 (1.7)	2.6 (-1.6)	2.5 (6.0)	2.1 (1.1)	7.2 (-0.3)	2.6 (1.6)	2.5 (-1.2)	2.1 (-1.6)
최종 소비	212.3 (1.8)	210.6 (-0.8)	56.7 (-1.5)	19.8 (-4.3)	18.6 (2.0)	18.3 (-1.8)	56.9 (0.4)	20.7 (4.7)	18.3 (-1.7)	17.9 (-2.1)
석탄 (백만 톤)	47.5 (-2.0)	45.3 (-4.6)	11.6 (-5.6)	4.0 (-4.7)	3.6 (-7.1)	3.9 (-5.3)	11.8 (2.0)	4.2 (4.2)	3.5 (-2.5)	4.1 (3.9)
석유제품 (백만 bbl)	796.4 (3.9)	780.7 (-2.0)	191.6 (-4.4)	65.5 (-7.7)	60.9 (-1.4)	65.2 (-3.5)	196.7 (2.7)	73.5 (12.2)	61.4 (0.9)	61.8 (-5.2)
- 비에너지유 제외	332.1 (-1.9)	318.5 (-4.1)	79.6 (-6.5)	25.8 (-19.1)	25.5 (1.6)	28.3 (0.4)	84.4 (6.0)	30.7 (19.0)	25.8 (1.1)	27.9 (-1.4)
전기 (TWh)	536.6 (0.7)	536.7 (0.0)	138.0 (-0.3)	47.8 (-1.6)	46.1 (1.1)	44.1 (-0.4)	136.7 (-0.9)	48.3 (1.0)	46.2 (0.1)	42.3 (-4.1)
천연가스 (백만 톤)	3.3 (52.4)	3.7 (12.4)	0.9 (23.6)	0.3 (25.2)	0.3 (21.8)	0.2 (23.6)	1.1 (26.7)	0.4 (16.4)	0.4 (16.8)	0.4 (53.2)
도시가스 (십억 m³)	21.3 (-1.8)	21.8 (2.3)	8.8 (4.6)	3.2 (-0.2)	3.2 (14.5)	2.5 (-0.3)	8.1 (-8.4)	2.9 (-11.0)	2.9 (-9.6)	2.4 (-3.4)
열·신재생·기타 (천 toe)	10.1 (-1.2)	10.5 (3.9)	3.3 (2.1)	1.2 (-1.8)	1.1 (9.1)	1.0 (-0.6)	3.3 (0.1)	1.3 (5.6)	1.1 (-6.4)	1.0 (1.1)

주: p는 잠정치,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비에너지유는 원료용 프로판, 부탄 소비를 포함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최종 소비 비중

	2024년	2025년p				2026년p				
		1~3월	1월	2월	3월	1~3월	1월	2월	3월	
산업	61.6	61.0	56.7	57.0	54.9	58.2	56.9	56.5	55.6	58.6
수송	16.5	16.2	14.1	12.3	13.5	16.5	14.8	14.4	13.7	16.3
가정	10.4	10.9	16.5	17.6	18.3	13.5	15.7	16.5	17.2	13.3
상업·공공	11.6	12.0	12.7	13.0	13.4	11.7	12.6	12.7	13.4	11.8
석탄	14.2	13.8	13.1	13.0	12.4	13.7	13.4	13.1	12.4	14.7
석유제품	47.0	46.4	42.3	41.4	40.9	44.8	43.2	44.3	41.9	43.4
- 비에너지유 제외	20.2	19.5	18.0	16.7	17.6	20.0	19.1	19.1	18.0	20.1
전기	21.7	21.9	20.9	20.8	21.3	20.7	20.6	20.1	21.6	20.3
천연가스	2.0	2.3	2.0	2.2	2.1	1.7	2.5	2.4	2.5	2.7
도시가스	10.2	10.5	15.8	16.5	17.2	13.7	14.4	14.1	15.8	13.5
열·신재생·기타	4.7	5.0	5.8	6.0	6.1	5.3	5.8	6.1	5.8	5.5

주: p는 잠정치, 비에너지유는 원료용 프로판, 부탄 소비를 포함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